

5명의 작가가 포착한 역동하는 삶의 순간

소암미술관, '뭉, 뭉' 전 개최

내달 1일까지 제1전시실서 '아트그룹' 올 세 번째 맞아 환경·경험 통해 삶에 대한 성찰

5명의 작가가 역동하는 삶의 순간들을 담아 성찰해 낸 전시가 한창이다.

소암미술관은 다음달 1일까지 '뭉, 뭉' 전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출범한 '김영일, 박희정, 박희정, 류 신, 홍자경 작가로 구성된 아트그룹 AWA(Artists with Attitude)는 진지한 작가적 태도를 표방하는 그룹으로 올해 세 번째 전시를 맞는다.

흔히들 '내 뭉을 찡기다', '한뭉을 찡기다'라고 말할 때의 '뭉'은 개인에게 할당된 권리로서의 뭉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 '내 뭉, 내 뭉을 하다.'라는 말은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넓은 의미의 책임과 의무를 뜻한다.

이들은 우리 주변의 빛과 꽃, 바나나, 세 잎 클로버와 반려동물, 자신과 타인을

관조하며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들에서 삶의 소중함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뭉'을 작품을 통해 말한다.

김영일 작가는 가시광선에 의해 보이는 대상과 가시광선이 배제된 대상의 차이를 상상한다. 거리의 사람들과 반려견, 차들과 신호등, 하늘에 구름과 날아다니는 새들이 모두 가시광선과 상호작용하고 파장에 따라 각각의 색들이 발현되며, 시각을 통해 대상을 분별한다. 김 작가는 가시광선이 배제된 사물들과 공간 상태의 빛을 생각하며 작품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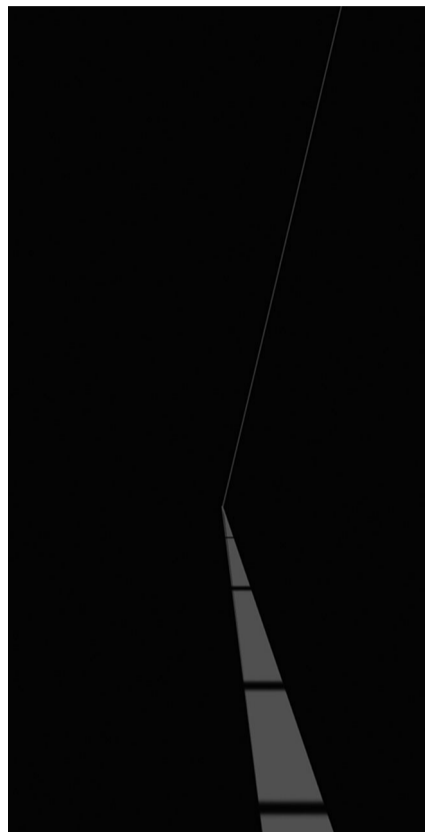
류신 작가의 작품 '화이트 가이너의 기적'에서는 한 소녀의 부모가 그의 스펙트럼을 극복하기 위해 나서 어느 날, 신비로운 곳인 화이트가든을 발견한다. 이곳은 마음을 치유하고 예술로 변화를 불러오는 특별한 장소다. 가족은 그와 함께 예술 작품을 만든다. 소녀는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게 된다.

박희정 작가의 '가족'은 세 잎 클로버를 통해 나오는 행복과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들의 다양한 표정과 움직임을 담았다. 식물과 동물, 일상의 순간들에서 느낄



박희정 작 '복덩이 바나나'.

수 있는 소소한 행복과 안락함 등 다양한 감정과 인상이 화면을 채운다.



김영일 작 'cognition'. 소암미술관 제공

박희정 작가의 '복덩이 바나나'는 어릴 적 자주 먹고 싶었던 노란색 과일, 바나나

를 추억으로 소환해 바나나의 색, 형태, 감정, 희망의 의미를 부여한 그림이다. 박 작가가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가장 큰 이야기는 희망이다. 삶, 희망, 바나나가 하나 돼 자신의 일생 속에서 일어나는 파장들을 회화와 조각으로 표현하고 그 여운은 관람객의 뭉으로 남겨둔다.

홍자경 작가는 타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과정이 작업으로 이어진다.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과시욕구, 인정욕구, 소유욕구와 같은 욕망의 실체가 인류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으로써 행동을 실행하는 힘이라고 규정해 왔다. 홍 작가의 '가방'은 외부 세계의 멋진 가방을 든 인물이 가르쳐준 욕망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내가 바라는 욕망이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소암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다섯 명의 작가가 펼쳐낸 작품 세계를 보고 창조의 원동력과 생의 약동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관객들이 자신의 삶의 뭉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기 기자 chan.park@jnilbo.com



일동중학교는 복합예술공간 ARTE에서 지난 6일 학교교육공동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제3회 가을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일동중 제공

일동중, ARTE 준공기념 '가을밤의 음악회'

일동중학교는 지난 6일 복합예술공간 ARTE에서 학교교육공동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제3회 가을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ARTE는 A:Art, R:Relationship, T:Talent, E: Education의 의미로 광주시 교육청 복합예술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일동중학교에서 가장 열악했던 공간에 구축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이번 음악회는 일동중 교사의 독창과 밴드부의 공연 외에 앙상블 아코의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독창, 해금과 대금, 그

리고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등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구성으로 가을밤을 물들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유현 학생회장은 "학교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는데 ARTE가 생겨 너무 좋고 예술작품도 전시하고 공연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용주 일동중 교장은 "일동 ARTE에서 학교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연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우며, 끼를 마음껏 발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문화재단, 예술현장 트렌드 강연 참여자 모집

예술·유통·AI 접목 강연 2회 14·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은 2024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술현장 트렌드강연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강연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광주예술인복지지원사업 '광주예술인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예술활동과 최신 동향의 접목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박찬기 기자

강연은 오는 14일과 28일 2회에 걸쳐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광주시 거주 (예비)예술인 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별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는 100명, 2차는 50명 선착순 모집한다. 강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링크 주소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무료. 박찬기 기자

ACC, 15~17일 '아시아 공예의 미래' 워크숍

무형문화 가치·지속가능 미래 모색 브루나이·태국 현지 공예 장인 초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5~17일 ACC 특별열람실에서 '아시아 공예의 미래'를 주제로 공예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시아 공예의 미래'는 ACC가 2024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 한국과 브루나이 수교 40주년, 한국과 태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브루나이와 태국 대사관, 문화부, 현지 공예 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 공예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브루나이 예술 수공예 교육센터, 태국 지속가능 예술 공예 연구소, 태국 캄 빌리지와 협력해 분야별 대표 공예 장인들을 초대했다.

먼저 15~17일 기관 및 분야별로 하루 2회씩 시민 대상 공예 워크숍이 6회 열린다.

또 △태국 북부 전통 대나무 공예 '타라 에우(Ta Laew) 드림캐처 만들기' △태



태국 캄 빌리지 전경. ACC 제공

국 남부에서 유래한 전통 직조 공예 '안리 파오(Yan Lipao) 뱀글 만들기' △브루나이 전통 공예품 음식 덮개인 '투둥 돌랑(Tudung Dulang)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18일에는 나주 염색장정관채전수 교육관과 조선대학교에서 국내 대표 장인들의 교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브루나이 예술 수공예 교육센터는 브루나이 전통 공예 부흥을 위해 설립된 브루나이 왕실 산하 기관이다. 전통 공예의 예술성을 보존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찬기 기자

한때 태국의 수도로 번영했던 아유타야에 위치한 태국 지속가능 예술 공예 연구소는 태국 왕실 산하 기관으로서 친환경적 공예품 제작 지원 및 전통 공예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캄 빌리지는 태국 제2의 도시 북부 치앙마이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전통 공예 및 문화 예술 교육, 워크숍, 전시, 체험, 공예 상품 개발 및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한다.

워크숍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중학생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강현 ACC 전담장은 "아시아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및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아시아 유관 기관 및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며 "현지 초청 장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이번 공예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아시아 전통 공예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기 기자

아시아콘텐츠 시범공연 2편 공개

ACC, 15일 '사물의 계보' 주제 실험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낭독극 '사사로운 사서' 등 선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5일 'ACC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 사업'으로 제작된 실험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와 낭독극 '사사로운 사서' 등 2편을 무대에 올린다.

'ACC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 사업'은 동시대 아시아의 현상을 아시아적 사유로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올해의 주제'를 선정해 2명의 창작자와 함께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유를 이끄는 2편의 다른 공연을 제작해 선보인다.

올해의 주제는 '사물의 계보'다. '사물의 계보'는 푸코의 계보학에서 착안했다. 계보학은 역사를 단선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 보편적인 관념을 의심하고 그 틈을 통해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을 이끄는 개념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무대 위에서 사물과 연희, 사물과 관객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 내리기에 도전한다.

올해 선정된 연출가는 적극과 강현주로 각각 실험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드라마 연극 '사사로운 사서'를 선보인다.

적극이 이끄는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모순된 것을 한 번에 보는 것'을 작업으로 구현해 온 적극 연출의 작업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다.

강현주 연출가가 극작·연출을 맡은 '사사로운 사서'는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도서관 장서들이 침수 사태를 겪으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오는 15일 오후 7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사사로운 사서'는 같은 날 오후 8시 ACC 아틀리에1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람연령은 13세 이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 기자